

기획

‘경희 = 20~24세·여성·문화예술가’ …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미래리포트’ 워크샵서 발표
각 대학 외형 이미지 눈길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우리 학교는 개교 65주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4월부터 연구에 돌입했던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결과 보고서를 3월 2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흥미로운 이미지가 하나 눈에 띈다. ‘각 대학 외형 이미지의 시각화’라는 제목의 이 이미지는 2014년 10월~11월까지 경희대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와 면대면 직접 설문조사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성별, 연령, 얼굴형, 체형, 키, 옷차림, 직업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경희대생이 생각하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대학별 이미지를 도출해냈다.



새내기 이미지로 대변되는 우리학교

대학원 위상 희미하다는 방증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무색무취’였다. 2009년 우리학교 평판도 제고를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와 일선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우리학교 이미지에 대해 “평범한 이미지가 많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뚜렷한 개성 없이 묻어간다는 이미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생각하면 ‘20~24세 여성, 유니섹스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라는 특정한 이미지를 얻었

다는 점에서 그나마 이번 조사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기에 충분한 함의를 갖는다. 이에 대학주보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 이미지에서 우리학교는 ‘20~24세’의 연령대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는 7개 학교의 이미지 중 가장 어린 이미지이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젊음이나 풋풋함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학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높은 연령대’라는 이미지는 해당 대학의 대학원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이미지 연령대가 가장 높게 나온 서울대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이 가장 학술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대학의 주요 정체성이 ‘최고위 학술연구기관’임을 상기해볼 때,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비롯되는 소위 ‘공부하는’ 이미지가 ‘새내기’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사실 쉽지 않다.

‘새내기’의 연령층 이미지로 대변되는 우리학교의 모습은 대학원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하며, 이는 다시 말해 우리대학이 ‘최고위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유호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로는 ‘직업’을 살펴보자. 타 대학들의 이미지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연구개발직’ 등과 같은 전문직의 모습으로 시각화된 것과는 달리, 우리학교는 ‘문화예술가’라는 광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학교에 타대와 변별되는 특성화 이미지가 뚜렷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 있다. 타대의 사례를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세브란스 병원’과 ‘법학대학’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직’의 모습으로 표현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각각 ‘삼성(삼성전자)’과 ‘공과대학’의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의 인수 이후 실용주의 학풍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중앙대는 ‘사무직’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물론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까지 소프트파워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읽어낼 수 있다. 다만 약간의 논리의 비약을 감수한다면, 이 조사결과는 타대의 그것들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들어 있는 학내의 여러 요소들, 예컨대 ‘주요 대학병원들과의 경쟁력’ ‘교수 및 연구원’ 등에서 집중돼 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무색무취’라는 결과로 구성원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2009년의 조사에서도 성별 이미지만큼은 ‘회사하고 깔끔한 예쁜 여성’으로 응답되어 있다.

앞으로, ‘여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위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사실 우리학교는 오래 전부터 주로 여성형 정체성으로 표현돼왔다. 이는 대학명칭 ‘경희’가 주로 여성의 이름에 쓰인다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학교의 대외 이미지와 대외마케팅이 ‘벚꽃(놀이)’, ‘아름다운 캠퍼스’, ‘섬세하고 미려한 랜드마크 건축물’ 등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무색무취’라는 결과로 구성원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2009년의 조사에서도 성별 이미지만큼은 ‘회사하고 깔끔한 예쁜 여성’으로 응답되어 있다.

대외마케팅 벚꽃·캠퍼스에 집중 전문적·진취적 이미지 약해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이든 아니든,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현대적 여성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전통적인 여성상’ 개념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같은 여성형 인격으로 시각화된 연세대의 사례와 비교해보자. 연세대는 ‘의료전문가’ 직종의 전문직 여성으로서, 활동하기에 편한 단발 헤어스

타일과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신발의 경우 확실히 식별되지는 않지만 병원 내에서 하이힐 차림으로 하루 종일 근무를 서는 의료관계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활동하기 편한 단발이 개연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문화예술가’라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에 짧은 치마, 하이힐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보고서는 우리학교를 ‘계란형의 얼굴에 키 171~175cm의 보통 체형’을 갖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외양은 이전 세대에서 여성을 규정할 때 흔히 묘사되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예술혼을 소유한 예술인의 이미지’, 혹은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등과도 직관적으로 매칭 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오히려 ‘경희대생은 예쁘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제의 사실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분명히 존재한다.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40대 이후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얼굴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며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희대학교의 나이 이순(耳順)도 넘어 66주년이다. 이번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도출된 위의 이미지를 그저 재미삼아 보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혹시라도 함의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면밀하게 찾아보고 분석해보자. 나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가꿔가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학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개교 15주년을 맞았던 1964년 10월 2일, 설립자인 조영식 학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개교 50주년과 100주년 기념식에 열어보라는 당부와 함께 본관 학원장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해왔다. 1999년에 있었던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선 학원장이 생존해있었기에 지난 2012년 12월 21일에 열린 ‘매그놀리아 2012’에서 학원장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은 인간다움과 문명을 위해 대학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담고 있다.

3월 다섯째 주(3.30~4.3)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퍸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분	일시	장소
공군장교 채용면접	공군장교	3.30(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면접	일반/IT	3.31(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설명회	일반/IT	3.31(화) 16:00~18:00	청운관 B117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希)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학식)
-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명조회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방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컨설팅면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금 (각 컨설팅별 일정 상이함)	온비즈 354호~356호 제법관 4층 107~2호	온비즈 354호~356호 제법관 4층 107~2호 취업진로지원처
집단상담	이종구 교수 (취업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네오관 103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연(성적상상)' 매뉴에서 신청 (컨설팅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택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e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비준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낮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친접(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p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p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1. 종합정보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https://kuis.khu.ac.kr>)에서는 교원의 하이안내, 연구/학제관련,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대학 신청, 예비군전입 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금과자서 출첵, 교육비 납입과자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들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센스’가 제공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상에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생에게 매일 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매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4.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중앙 밸류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출증증명서, 출입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중앙밸류기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http://kyunghee.certipa.com>)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6. 캠퍼스 무선망 (KHU Wi-Fi)

교내 전 건물 및 주요 외부 공간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ID/Password로 접속 가능합니다.

7.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8.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에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소중한인간 서비스

‘소중한인간’ 서비스는 휴대폰 자체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청진/불편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휴대폰 사용자간의 소통공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소중한인간] 메뉴에서 멤버별